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 본 朝·明·日 삼국의 전략전술 비교

李 敏 雄
(해군사관학교 교수)

- 머 리 말
- 朝·明·日 삼국의 海洋戰略 변화 추이
- 朝·日 양국의 海戰戰術 비교
- 맺 음 말

1. 머 리 말

戰略이란 원래 군사용어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 개념이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¹⁾ 국가전략이 국가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 경제, 외교 및 군사적 제 역량을 종합운영하는 방안이라면, 군사전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볼 해양전략은 적용범위를 海洋으로

1) 이하의 몇 가지 개념은 '전략개론' 관련서적들의 일반적인 정의를 간추린 것이다.

한정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가 해양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방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술은 전략의 하위개념으로서 병력, 무기체계, 진형 등을 활용하여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여기서 살펴볼 해전에서의 전술은 해양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해전에서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戰法을 살펴보는 것에 가까울 것이다.

사실 전략과 전술은 각각의 개념이 앞에서 정리한 것보다 매우 복잡한 정의를 함축하고 있는 전문용어들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위에서 본 일반적인 수준의 정의를 바탕으로 임진왜란기 해전에 참전한 조선과 일본, 그리고 명나라의 해양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삼국이 임진왜란에 임하는 시점까지의 해양전략은 어떠했었는지, 또한 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 해양전략이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은 임란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전술 부문은 전란 전 기간 동안 펼쳐진 주요 해전에서 각각의 전술을 추출해 보려고 한다. 임진왜란 기간중에 펼쳐진 해전은 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펼쳐졌고, 명의 수군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만 참전하였다. 때문에 남아 있는 戰術 관련기록은 조선과 일본간의 해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조선과 일본 양국간의 주요 해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해전전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朝·明·日 삼국의 海洋戰略 변화 추이

임진왜란 참전국들의 해양전략을 보기에 앞서 해양전략을 구분해 볼 기준이 되는 몇 가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양전략은 크게 海上拒否戰略과 海洋統制戰略으로 나눌 수 있다.²⁾ 전자는 주로 대륙

국가가 지상군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국 해양에 대한 적국의 사용 및 접근을 거부하는 소극적 방어 전략이고, 후자는 반대로 해양력을 중심으로 적국의 해양 접근이나 사용을 통제하고 자국의 해양 사용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해상통제전략이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전략과 관련해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制海權(command of the sea) 또는 海洋統制權(control of the sea)이 있다. 제해권은 미국 해양전략의 기틀을 세웠던 마한(A. T. Mahan)이 그의 전략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삼았던 것이다. 마한 자신이 정확한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제해권이란 “해양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능력 또는 상태”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해양통제권 역시 제해권과 비슷한 것이지만, 근대 이후 무기체계 발전에 따라 제한된 해역에서 제한된 기간의 해양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制海權이란 용어만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決戰, 現存艦隊, 艦隊封鎖戰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결전(decisive battle)이란 적의 함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위협이 되므로 가용한 세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파한다는 개념이다. 둘째, 현존함대전략(fleet in being)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함대가 취해왔던 방법으로 결전을 회피하고 세력을 보존함으로써 적의 전투 또는 공격의지를 발동할 수 없게 견제한다는 개념이다. 셋째, 함대봉쇄(fleet blockade)는 결전을 회피하고 현존함대전략을 채택한 적의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항만을 봉쇄하는 전략을 말한다.²⁾

이상에서 정리한 해상거부와 해양통제 전략, 그리고 제해권에 대한 개념과 제해권 확보를 위한 결전 등 세 가지 전략을 기준으로 임진왜란 시기 朝·明·日 삼국의 해양전략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2)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총서02, 1998, 제 2 장 참조

3) 김현기, 위의 책 ; 김중기, 『해양전략개론』, 해군대학, 2001, 제 I ~ III 장 참조.

(1) 조선의 해양전략 변화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왜구에 대한 대책으로 수군을 정비하고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태종과 세종은 수군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⁴⁾ 그 중 軍船의 건조와 성능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태종 재위 초기 400여 척이던 군선규모가 세종 말년에는 800여 척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수군조직의 체계화와 병력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세종대 후반에는 5만여 명의 병력이 8도에 분포하게 되었다.⁵⁾ 이처럼 확대된 수군은 전국의 연안 72개소에 水軍都按撫處置使, 첨절제사, 만호 등을 파견하여 조직적으로 편성되고 운영되었다.⁶⁾

세종대에 추진된 또 한 가지 역점사업은 火器의 개발이었다. 부왕 태종대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되었던 화기개발 분야는 세종의 학구적, 과학적 태도와 연결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세종은 화기의 기본이 되는 염초의 생산과 화포제작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세종 후반기에 이르면 전국에 산재한 2만여 개 이상의 화포를 새로운 방식으로 개조했는데, 기존보다 화약 소비량은 줄고 성능은 오히려 개선된 것이었다.⁷⁾

이러한 화약과 화포의 발전은 세종대의 큰 업적 중 하나인 4군6진 개척 과정에서 실제 활용되었다. 비록 이때 여진족을 제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화기가 활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기는 軍船에서 사용하는 무기였고, 이 시기에 더욱 개량된 화기가 수군에 배치되었을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鮮初 이래의 움직임은 바다로 침범하는 왜구를 육지에 상륙하기 전 단계인 해상에서 방어하자는 해상거부에 가까운 해양

4) 拙稿, 『임진왜란 해전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제1장 1절.

5) 『世宗實錄』 권148~155, 「세종실록 地理志」(『세종실록』 권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본, 339쪽)

6)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pp. 22~25.

7) 허선도, 『조선시대 화약병기사 연구』, 일조각, 1994, pp. 41~45.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세종 1년(1419)의 대마도 정벌은 왜구 근거지에 대한 공략을 목표로 상왕 太宗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가운데 추진되었다. 대략 220여 척의 군선과 1만 7천여 병력이 동원된 이 정벌은 만족할 만한 실제 戰果를 얻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목적했던 왜구 금압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⁸⁾ 대마도 정벌은 역사적 의의도 적지 않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적극적인 해양통제전략의 구체적인 한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적극적인 해양전략이 임진왜란 시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강력한 수군세력을 보유했던 世祖 연간(1455~1468)에 처음 대두되었던 防倭陸戰論이 中宗 재위기인 16세기 초에 이르면서 다시 한번 조정에서 공론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⁹⁾ 방왜육전론이란 일본의 長技는 水戰이고 조선은 騎兵이 장기이므로 일본이 강한 해전을 피하고 상륙하기를 기다렸다가 해상에서 지친 적군을 騎兵 전술로 제압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방왜육전론이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은 당시 수군이 해안 지역에 城堡를 구축하는 등 해상방어 준비보다 육지에 기지를 갖추게 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해 수군은 고금을 막론하고 세력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경비와 인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평화기가 계속될 때에는 무용론이 제기되기 쉬운 분야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16세기의 수군은 放軍收布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15세기 후반부터는 적극적인 해양통제나 해상거부전략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초부터 발생한 三浦倭變(1511)과 蛇梁鎮倭變(1544), 그리고 乙卯倭變(1555)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왜구로 인한 騷擾 내지 邊亂은 조선으로 하여금 해양전략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중에도 을

8)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한권으로 읽는 역대병요·동국전란사』, 2003, 제6장.

9) 장학근, 『조선시대해양방위사 연구』, 창미사, 1989, 제5장(16세기 방왜체제 변화).

묘왜변은 규모면에서도 전과 달리 중앙군의 직접 파견을 필요로 했지만, 당시 침범한 왜구의 선박의 규모가 커지고 화포를 장착했던 점에서 조선 측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猛船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 군선체제를 포기하고 그보다 대형의 板屋船이 등장하게 되었다. 156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이미 판옥선의 전국적인 배치가 완료되었고, 척수면에서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⁰⁾ 판옥선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삼층구조를 지니고 있어 노역을 하는 결꾼과 전투에 임할 射夫가 다른 갑판에서 활동하며, 결꾼은 판옥 내부에 위치하게 하여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었다.¹¹⁾

판옥선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총통의 개발은 임진왜란을 불과 한 세대 앞둔 시기에 수군의 전투력을 한층 증강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해양 방위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단지 판옥선과 天·地·玄·黃 총통의 개발은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 구조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시기의 해양전략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먼저 임진왜란 직전의 상태에서 본다면 이렇다할 전략적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은 임진왜란 초기에 국방력의 전체적인 붕괴 혹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참패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¹²⁾ 전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선조와 조선 조정은 申砬과 李鑑 등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던 용장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었다.

신립 등은 나름대로 수군무용론을 제기하며 전력을 하나로 묶어 일본의 침입에 대비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다. 그들이 수군무용론을 제기한 것은 당시 수군의 실상이 매우 허술했기 때문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전력을 하나로 합쳐서 상륙한 이후에 일본군을 공격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10) 『명종실록』 권32, 명종 21년 3월 甲辰.

11) 김재근, 「임진왜란 중 朝·日·明의 군선」, 『속한국선박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민족전란사 4), 1987, 제1장(왜란의 배경).

순신은 조선초기 이래의 해양방위 전략, 즉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육군과 수군 어느 쪽도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³⁾ 이때 조정은 이순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겨 수군을 폐지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따라서 전란 직전의 조선은 이순신과 원균 등을 각도 수군절도사로 삼아 일본의 침입에 대비한 수군전력 건설을 계획했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선초기 이래의 해상거부전략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조정의 이러한 계획은 전쟁 초기 경상 좌·우도 수군이 제대로 전투도 한번 못한 채 붕괴되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이순신의 전략 좌도 수군은 이와는 달리 첫 해(1592년) 5월 초부터 시작된 주요 해전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제해권을 장악해 나감으로써 호남지방을 지켜내며 전체적인 戰局 흐름에 역전의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조선 수군의 연전연승 중에서도 특히 한산대첩과 부산포 해전 승리는 조선 조정의 해양전략이 바뀌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산대첩은 일본의 정예 수군대 조선 연합함대 간의 실질적인 의미의 첫 번째 해전이었고, 결과는 일본 해군의 참패와 이로 인한 제해권의 상실이었다. 그리고 이어 벌어진 부산포 해전은 조선 수군이 적극적으로 일본 수군의 근거지를 급습한 해전이였다.¹⁴⁾

이후 조선 조정의 해양전략은 해상거부에서 적극적인 해양통제전략으로 일변하였다. 임진왜란 전체로 볼 때 의병의 국지적인 승리 외에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가한 유일한 세력은 조선의 수군이었다.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조선 조정은 癸巳年(1593) 초부터 적극적인 해양통제전략을 수립하고 이순신과 수군에 대해 이에 입각한 決戰戰略을 펼칠 것을 명령했던 것이다.¹⁵⁾

13) 『李忠武公全書』 권9, 李芬 撰, 「行錄」.

14) 拙稿, 앞의 책, 2002, 제1장 2절

15) 李舜臣, 『壬辰狀草』와 『亂中日記』의 1593년 이후 기록에서 일본군을 찾아 격멸하라는 조

물론 이러한 조선 조정의 해양통제전략은 수군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것이었다. 이순신은 강화교섭기의 위기상황하에서도 조정의 끊임없는 출격명령을 이행해야 했고, 정유재란 직전에 파직될 무렵에는 조정의 출격명령을 거부했던 것이다.¹⁶⁾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순신은 기본적으로 조선 수군의 전력구조상 적극적인 해양통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인식하고, 거제도에서 해역을 장악하고 지키면서 함대세력의 유지와 보강을 위한 현존함대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다.

李舜臣을 대신해 통제사직에 오른 원균 역시 처음에 자신이 밝혔던 결전 전략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육군의 선제공격 없이 수군 단독으로 적진 깊숙이 출격할 수 없음을 여러 번 주장하였다.¹⁷⁾ 그러나 도원수 등 육군 장수들과 조정은 무조건 해상결전을 벌일 것을 주장하였고, 결국에는 무리한 출동을 강행하여 강대한 적에게 노출되는 우를 범해 漆川梁海戰의 참패를 가져왔던 것이다.¹⁸⁾

칠천량 해전의 패배는 조선 조정과 선조에게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후 선조는 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에게 수군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전을 포기하고 상륙해서 도원수를 돕는 것도 가하다는 뜻을 전달하였다.¹⁹⁾ 즉, 조선 조정은 칠천량 해전 패배의 결과 우리 수군이 궤멸된 현실을 인식하고 해양방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 조정이 이처럼 해양방위전략을 포기했던 것과는 달리 이순신은 상황변화에 따라 해상거부전략으로 기본전략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제해권의 유지 또는 확보를 위해 해전을 회피하면서 전력을 보강하였고, 海路上의

정의 명령이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6) 장학근, 「충무공 이순신의 하옥죄명, 전몰상황, 자살론, 순국론에 관한 검토」, 『임란수군 활동연구논총』, 해군 군사연구실, 1993.

17) 『宣祖實錄』 권87, 선조 30년 4월 己卯.

18) 拙稿, 「정유재란기 칠천량해전의 배경과 원균함대의 패전 경위」, 『한국문화』 2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2.

19) 『李忠武公全書』 권9, 附錄 1, 李芬 撰, 「行錄」 丁酉年 9月.

요충지를 막아 지키는 현존함대전략을 고수하였다. 칠천량 해전에서 패배한 뒤 불과 2개월만에 펼쳐진 鳴梁海戰에서는 이순신의 지형과 조류를 활용한 적절한 전술과 주변지역 백성의 지원 등에 힘입어 조선 수군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²⁰⁾

명량해전의 승리는 조선 수군이 재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는 高下島에서 월동한 뒤, 戊戌年(1598) 2월에 古今島로 통제영을 옮겼다. 이후 노량해전이 펼쳐질 때까지 작전이 가능한 해역에서 적극적인 해양통제전략을 견지할 수 있었다.²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해양전략은 한 가지 전략을 계속 유지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에 따라 수차례 변동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 조정은 전세가 한창 불리하던 壬辰年(1592)에 수군이 해전에서 연전연승하자 이후 決戰 전략을 선택하였고, 이후 확실한 상황판단도 없이 출동과 공격을 명령함으로써 칠천량 해전의 패배를 불러왔다. 칠천량 해전 패전 이후 조정은 해양방위 자체를 포기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나, 李舜臣은 해상거부 및 현존함대전략을 바탕으로 명량해전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조선 수군의 재기와 제해권의 유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 명의 해양전략

명나라는 건국 이후 15세기 초엽에 鄭和의 원정함대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해양탐험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명나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세기 초부터 서남부 해안지역을 침구한 일본의 후기 왜구에 대한 명 조정의 조처는 공식적인 감함무역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왜구 피해가 심각해진

20) 趙成都, 「명량해전 연구」, 『군사』 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2; 拙稿, 「명량해전의 경과와 주요 쟁점 고찰」, 『군사』 47, 2002.

21) 拙稿, 『임진왜란 해전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제 4장 참조.

이후에는 척계광에 의해 절강병법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는 수군의 조직과 훈련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²²⁾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6세기 말까지 명나라의 해양전략은 해상으로부터의 침입을 수군이 막는다는 소극적인 해상거부전략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나라는 대국으로서 자국 침략을 공언한 일본을 실력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과 자국 영토 밖에서 침략을 저지하고 가능하면 전력의 손실 없이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실리를 모두 달성하려는 입장이었다. 전쟁 초기 참전할 병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조선 수군이 연전연승을 거듭으로써 일본의 해상을 통한 침입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때문에 임진왜란 초기 明軍의 파병에는 수군이 포함되지 않았다.

명나라 조정은 4년여에 걸친 강화교섭 과정에서 일본의 재침, 즉 정유재란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재파병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인 1597년 2월에 明의 大學士 沈一貫은 재침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군의 파병을 제기한 바 있고, 같은 해 6월에는 조선에도 파견된 바 있었던 邢玠 등이 이를 다시 주장하여 일단 명의 수군 파병이 결정된 상황이었다.²³⁾

여기에 더해 결정적으로 명 수군의 파병을 실행하도록 한 계기는 漆川梁海戰에서 조선 수군이 참패한 것이었다. 명 조정은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대패함으로써 전과는 달리 일본 수군을 방어해 줄 울타리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명의 본토가 해상 방면에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²⁴⁾ 이후 곧바로 명 조정은 總兵 周于德으로 하여금 旅順에서 江華島 以西 해역을 담당하게 하고, 당시 물러나 있던 陳璘을 起伏시켜 總兵으로 삼아 廣東의 수군 5천명으로 강화도 이남을 수비하도록 하는 적

22) 『紀效新書』, 國防軍史研究所(군사사연구 자료집 7), 1998, 下卷(卷之十二 舟師篇).

23) 한명기, 「정유재란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 이순신장군 순국400주년 기념학술회의, 1998, pp. 87~101.

24) 諸葛元聲, 『兩朝平壤錄』, 『日本』 下(국학자료원, 『壬辰之役史料匯輯』 3권, 1992, pp. 120·131~132).

극적인 조처를 취했고, 이 사실을 조선 조정에도 전달하였다.²⁵⁾

이런 결정이 있는 이후 丁酉再亂 초기 위급 상황에서 명군을 이끌었던 經理 楊鎬는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일본군의 복상을 저지시킨 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일본군의 구축을 목표로 명의 수군을 파병하여 요충지를 점거하고, 일본군의 糧道와 歸路를 끊어버린다는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²⁶⁾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은 명나라가 嘉靖年間(1522~1566)에 왜구 침입을 격퇴할 때 福建 지방 수군의 활약이 컸던 경험과 임진왜란 초기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연파하여 제해권을 장악했던 前例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나라 수군이 실제 참전하게 되었던 것은 1598년 四路竝進作戰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四路 중에 水路軍이 포함되었던 것은 1597년 年末의 蔚山戰鬪에서 大勝 직전에 물러나고 실패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즉 당시 明 측은 수군이 준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바다를 통한 일본 구원군을 막지 못했던 것이 직접적인 실패원인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四路竝進 작전은 수군의 파병이 완료된 이후에 시작한다는 것과 수로군을 독립시켜 해상 방면을 주관하도록 할 것 등을 결정했던 것이다.²⁷⁾

명나라의 해양전략은 마땅히 정리할 만한 용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수군을 파병하여 조선 해역에서 방어에 임하도록 했지만,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해양통제전략을 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 임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陳璘 자신의 전략전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李舜臣의 적극적인 설득과 치밀한 노력에 의해 참전을 결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25) 『宣祖實錄』 권99, 선조 31년 4월 丁巳.

26) 諸葛元聲, 앞의 책, pp. 134~136.

27) 諸葛元聲, 앞의 책, pp. 163~166.

28) 拙稿, 『朝·明 연합함대의 형성과 노량해전 경과』, 『역사학보』178, 역사학회, 2003.

요컨대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해상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해상거부 전략을 견지하는 가운데,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패전한 이후 보다 효과적인 해로방어를 위해 수군을 파병하였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해전에 참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3) 日本의 해양전략 변화

16세기 말의 일본 수군은 전국에 산재해 있던 해상세력과 해적집단들이 戰國時代를 거치면서 이중적인 구조를 갖춘 체제로 재편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 각지의 해양세력들은 戰國大名으로 성장하여 중앙정권의 직속 수군으로 편성되거나, 혹은 세력이 큰 각大名 휘하의 예하 수군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다.²⁹⁾ 임진왜란 이전 단계의 일본 수군이 갖는 또 한 가지 특징은 島嶼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戰國時代의 통일과정에서 전쟁사적 혹은 역사적인 큰 의의를 갖는 해전이 드물었고, 따라서 일본 고유의 海洋戰略을 정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본의 해양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시대에 펼쳐진 해전을 살펴보면 嚴島 전투와 石山 전투가 가장 유명하다. 전자는 1555년에 毛利氏가 원래 大内氏 휘하였던 수군과 村上氏 수군세력을 동원해 승리함으로써 安芸國의 맹주로 떠오른 전투였고, 1578년의 石山戰鬪 해전은 織田信長 세력과 毛利氏 세력의 맞대결로 펼쳐진 대규모 전투였다.³⁰⁾ 嚴島戰鬪 때의 수군은 해전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해상 요충지를 점거하면서 적군의 병력수송이나 군량보급을 차단하는 것이 주 임무였고, 때에 따라서는 상륙하여 攻城戰에 임하기도 하였다.³¹⁾ 安宅船의 등장으로 더 유명한 石山 전투의 제2차 海戰은 양측이 최대 세력으로 임했지만, 어느 한쪽이 파멸되는 해전은 펼쳐지

29) 三鬼清一郎, 「朝鮮役における水軍編成について」, 『名古屋大學文學部 20周年記念論集』, 1968.

30) 拙稿, 앞의 박사학위 논문, 제1장 1절 2소절 참조

31) 宇田川武久, 『日本の海賊』, 東京-誠文堂新光社, 1983, pp. 85~86.

지 않았다. 즉 이 때에도 적 艦隊를 격파하기 위한 해전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해전을 통해 일부 군선을 파괴하고 海路를 막아 병참선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다.³²⁾

요컨대 일본에서는 戰國時代 말기까지 각 지역의 수군세력이 많은 전쟁에 동원되고 있었지만, 양측이 해전을 벌여 상대 수군을 격파하고 制海權을 장악하는 의미의 海戰 개념이나 海洋戰略은 발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임진왜란 초기 일본 수군의 해상활동에 그대로 나타난다. 개전 초기 朝鮮의 경상 좌·우도 수군은 세력을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개격파되고 말았다. 부산첨사 鄭撥과 다대포첨사 尹興信 등은 자체 세력만으로 역전하였으나 피살되었고, 나머지 세력들은 대개 장병이 도망한 경우가 많았다.³³⁾ 때문에 일본 수군은 별다른 피해 없이 병력과 군수품 수송을 위한 海路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해상전투나 작전은 강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수군은 1592년 6월 초순까지 계속된 해전에서 번번이 패배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해양통제 또는 制海權 확보를 위한 조선 수군과의 대결을 계획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로 豊臣秀吉의 직속 수군이자 일본 수군의 대표적인 장수였던 脇坂安治, 九鬼嘉隆, 加藤嘉明 등은 이 시기에 모두 중부지방인 京畿道 지역까지 진격해 있던 상태였다.³⁴⁾ 이때 일본은 자신들의 후방 보급로를 위협하는 조선 수군을 격파하기 위해 주력 함대를 파견함으로써, 제해권 확보를 위한 決戰戰略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이 전략은 7월 초에 閑山大捷에서의 대패로 인해 오히려 남해의

32) 佐藤和夫, 『海と水軍の日本史』, 原書房, 1995, pp. 191~195.

33) 『宣祖實錄』 권26, 선조 25년 4월 壬寅; 柳成龍, 『懲愆錄』 권1(倭分兵陷西平浦多大浦 多大浦僉使尹興信 力戰被殺).

34)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東京 海と空社, 1942, pp. 90~91; 北島万次, 『壬辰倭亂과 李舜臣』, 『南冥學研究』 8,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1999, pp. 228~229.

제해권을 상실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같은 해 9월 1일에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의 본거지를 습격한 釜山浦海戰이 펼쳐졌다. 이 해전에서도 일본 수군은 100여 척 이상의 軍船을 잃는 등 대패하였다. 이와 같이 해전에서의 패배가 거듭되자 일본 수군에게 더 이상 조선 수군에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는 의미의 海戰禁止 명령과 해안지역에 築城한 뒤 지키기만 하라는 豊臣秀吉의 명령이 내려졌다.³⁵⁾

임진왜란 첫 해 해전의 연패 이후 일본은 수군전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대형 軍船 건조와 선원징발 등 철저한 준비를 행하였다.³⁶⁾ 이와 같은 수군력 재건설과 함께 일본은 제해권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특히, 정유재란 직전에는 일본이 먼저 全羅道를 침범한다는 것과 水陸並進 전략을 택한 사실이 조선 조정에게까지 알려졌다.³⁷⁾ 그들은 수륙병진전략을 실행하는 데 조선 수군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조선 수군을 격파하여 제해권을 장악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決戰戰略을 선택했던 것이다.

일본의 계획대로 진행된 칠천량 해전은 전투 중에 전장을 이탈한 10여 척의 戰船을 제외한 세력 전체를 상실했을 정도로 조선 수군의 궤멸적인 패배로 끝났다.³⁸⁾ 그러나 칠천량 해전 직후 일본 수군이 취한 행적은 이전 단계의 전략적 미숙성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해전에서 조선 수군에게 궤멸적인 타격을 입힌 일본 수군은 해전 이후 1개월여 이상 적극적인 해상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섬진강 하구까지 水陸並進하던 수군이 南原城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상륙함으로써 이후 보름 이상 해상작전은 중단되고 말았다.³⁹⁾

35) 李炯錫, 『壬辰戰亂史』 上卷, 서울대 출판부, 1967, pp. 338~339;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東京-吉川弘文館, 1995, p. 111.

36) 渡辺世祐, 「朝鮮役と我が造船の發達」, 『史學雜誌』 46編5号, 1935, pp. 576~579; 三鬼清一郎, 앞의 논문, pp. 280~284.

37) 『宣祖實錄』 권56, 선조 27년 10월 甲寅.

38) 앞의 주)18과 같음.

일본 수군이 豆耻津으로 상륙하던 날, 통제사로 재임명된 李舜臣은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 서남해안으로 향하고 있었다.⁴⁰⁾ 南原城 공략작전을 위해 상륙해서 西北上했던 일본 수군과 이순신의 西南行 교차는 바로 해양전략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강한 세력을 가진 일본 수군은 잠시 바다를 버려둔 채 陸戰에 참여했고, 바로 이 시기에 보잘것없는 세력만 남아 있던 조선 수군은 이순신을 중심으로 속속 단합하여 재건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일본 수군은 뒤늦게 南原城 점령 이후 바다로 복귀해 水陸竝進戰略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일본 수군의 西海 진출을 막으려는 李舜臣艦隊에 의해 鳴梁海峽에서 패전하고 물러남으로써 해상 방면의 진격이 좌절되었다. 서해 진출 실패뿐 아니라 이후 古今島로 이진하면서 세력을 만회한 조선 수군에게 南海의 제해권마저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일본이 제해권 장악에 실패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의 해양전략은 당시 전쟁의 규모나 계획 단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숙성을 면치 못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철저한 준비 끝에 조선 수군을 크게 무너뜨린 칠천량 해전 이후 일본 수군이 해상 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것은 해양전략 자체가 없거나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9) (日本)參謀本部, 『日本戰史 朝鮮役』, 本編, 1924, pp. 356~357.

40) 趙慶男, 『亂中雜錄』 卷三, 丁酉年(1597) 8月 6日.

3. 朝·日 양국의 海戰戰術 비교

(1) 주요 해전에 나타난 朝鮮 水軍의 전술

임진왜란 직전인 1592년 3월 초에 李舜臣은 당시 좌의정 柳成龍으로부터 편지와 함께 『增損戰守方略』이라는 책을 전달받았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싸우고 지키는 방법을 더하고 뺀 戰法書이었는데, 이순신은 水陸戰의 火攻 등 그 내용을 일일이 살펴본 뒤에 흡족한 느낌을 표한 바 있다.⁴¹⁾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순신은 뛰어난 智將으로서 항상 戰術이나 作戰에 관해 부하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하곤 하였다. 여기서는 임진왜란 시기 주요 해전에 나타난 戰術에 대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 비교해보기로 한다.

임란 첫 해(1592)의 제1차 출전은 開戰 이후 20여 일이 지난 5월 4일에 단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순신은 휘하 세력을 결집하여 戰船 24 척으로 艦隊를 구성하였다. 이순신 함대는 5월 7일 새벽부터 출항하여 첫 번째 해전지인 巨濟島의 옥포 앞바다에 이르렀다. 옥포만에 있던 일본 함대는 약 30척 정도였는데, 주변지역을 약탈하던 중에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일본 함대는 먼저 선봉 6척이 배를 몰아 李舜臣 함대에 맞섰으나 조선 수군의 우세한 火器와 弓矢를 이용한 공격전술을 감당치 못하고 결국 26척을 잃었다. 최초로 벌어진 옥포해전은 조선 수군의 銃筒 등 화기사용, 戰船을 이용한 撞破戰術, 弓矢를 이용한 射殺, 그리고 火攻으로 일본 군선을 焚滅시키는 등 뛰어난 海戰術로 완승을 거두었다.⁴²⁾

같은 날 오후 펼쳐진 合浦海戰은 5척의 소규모 일본 선단을 추격하여 격

41) 李舜臣, 『亂中日記』, 壬辰年(1592) 3월 5일.

42) 李舜臣, 『壬辰狀草』, 萬曆 20년(1592) 5월 20일자 啓本.

과한 전투였다. 이어 다음날 아침에 벌어진 赤珍浦海戰에서는 포구에 정박해 있던 13척을 분멸하는 戰果를 거두었다.⁴³⁾ 결과적으로 7일과 8일 양일간에 펼쳐졌던 제1차 출전의 세 차례 해전은 소규모 일본 함대를 습격 또는 추격해서 各個擊破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부터 제2차 출전이 시작되는 5월 29일까지 李舜臣 함대의 행적을 알려주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將兵이 전술연마와 무기 마련 등 전투 준비에 열중했을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이 시기에 한편으로 수군 병력충원을 위해 소속 읍에서 징발을 계속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라우수사 李億祺에게 협력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출전해 올 것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한다.⁴⁴⁾

전라우도 수군과 합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제2차 출전은 일본 수군이 全羅道 해역을 향한다는 元均의 급보 때문에 계획보다 며칠 빠른 5월 29일 새벽에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해전은 출전 당일에 泗川 선창에서 벌어졌다. 李舜臣 함대는 정박해 있던 12척에 대해 선제공격을 시도했으나 일본 수군은 軍船을 떠나 근처의 구릉지대에서 조총으로 거세게 저항하였다. 이에 이순신은 유인작전을 펴기도 했으나 일본 수군은 그대로 응사할 뿐이었다. 때마침 조류가 밀물로 바뀌자 이순신은 해전에 처음 투입한 거북선을 앞세워 일본 군선들을 공격하여 모두 불태웠다. 이날 전투 과정에서 일본군 사상자도 많았지만, 李舜臣을 비롯한 몇 명이 銃傷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⁴⁵⁾

이틀 후인 6월 2일 아침에는 일본 軍船 20여 척이 唐浦에 정박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출동하여 2시간 후에 唐浦海戰이 벌어졌다. 이순신 함대는 역시 거북선에서 각종 총통을 발사하면서 공격을 시작하여 결국 敵船을 모두

43) 金一龍, 「임진란 적진포해전」, 『제10회 전국향토문화사연구발표 수상자료집』, 전국문화원연합회, 1995, pp. 153~176.

44) 李舜臣, 위의 책, 1592년 6월 14일 啓本(二度唐項浦等四處勝捷啓本).

45) 拙稿, 앞의 박사학위 논문, 제1장 2절 3소절 참조.

焚滅하고 다수의 장병을 사살하였다.

그 다음날도 일본의 함대를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신속히 도주하는 바람에 해전은 없었고, 이후에는 일본 함대를 수색하면서 동쪽으로 전진해 나갔다. 이어서 6월 4 일에는 기다리던 전라우도의 李億祺 함대가 합류하면서 명실상부한 연합함대가 형성되었다.⁴⁶⁾ 전라우도의 戰船 25척이 추가되면서 연합함대는 50여 척의 대함대가 되었고, 비로소 일본 함대를 상대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해전은 6월 5일 아침에 전날 쫓긴 일본 함대가 唐項浦에 정박 중이라는 지역주민의 첩보에 따라 연합함대가 당항포에 접근하면서 시작되었다. 당항포 해전은 이전까지의 해전과는 달리 유인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쳐 일본 함대를 바다로 끌어낸 후 1척을 제외한 전부를 격파하였다.⁴⁷⁾ 이 해전에서도 거북선은 突擊船 역할을 했고 大將船부터 공략을 시작하여 쾌승을 거두었다.

제2차 출전의 마지막 해전인 栗浦海戰은 6월 7일 정오경, 巨濟島 북단의 永登浦 부근에서 일본 함대를 탐색하던 중 근처 울포에서 부산 방향으로 도주하는 7척을 발견하고 추적한 끝에 모두 분멸해 버린 소규모 전투였다. 이후 연합함대는 加德島를 지나 洛東江 하구 부근까지 일본 함대를 찾아 수색작전을 벌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4전 4승의 성과를 거둔 제2차 출전은 6월 10일에 작전을 중단하고 각자 본영으로 귀환함으로써 끝났다.

일본 수군의 연패 소식을 접한 豊臣秀吉은 해상보급로 확보와 조선 수군 제거를 위해 직속 수군에게 一戰을 펼치도록 명령하였다.⁴⁸⁾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준비를 서둘러 마친 脇坂安治는 7월 6일에 73 척 함대를 이끌고 먼저 金海를 떠나 출전을 강행하였다. 한편, 조선 수군은 제2차 출전 이후

46) 李舜臣, 『壬辰狀草』, 앞과 같은 啓本

47) 나머지 한 척은 이튿날(6일) 새벽 防踏僉使 李純信에게 습격당해 50여 명이 참획되었다.

48) 北島万次, 『壬辰倭亂과 李舜臣』, 『南冥學研究』 8, 경성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9, pp. 228~229.

함대를 정비하고 있다가, 7월 4일에 전라좌우도 연합함대가 좌수영에서 다시 모여 작전을 논의하였고 6일에는 元均 함대도 합류한 상황이었다.

이후 8일 아침에는 戰船 59척의 조선 연합함대와 일본의 정예 脇坂安治 함대 73척이 見乃梁 근처에서 조우하여 閑山大捷이 시작되었다.⁴⁹⁾ 견내량의 海域 상황이 폭이 좁고 수심도 낮았으므로, 이순신은 일본 함대를 넓은 바다로 유인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유인작전에 말린 협판안치 함대가 閑山島 앞의 넓은 바다에 이르자 연합함대는 일제히 선회하면서 유명한 ‘鶴翼陣’ 진형으로 일본 함대를 포위 공격하여 大船 1척 포함 겨우 십여 척만이 탈출해 갔을 정도로 완승을 거두었다.⁵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閑山大捷을 계기로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기피하게 되었고, 남해의 제해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 첫 해의 마지막 해전인 釜山浦海戰 출전에 앞서 全羅左·右道 수군은 8월 1일부터 좌수영에 합류해 있었다. 이 시기의 행적에 대해 이순신은 “陣을 치고 거듭 約束을 명확히 하였다”고 언급하였다.⁵¹⁾ 즉 2차 출전 세 번째 해전에서 처음 연합함대를 형성했고, 제3차 출전 때에는 이들 전에 합류했던 전라우도 이역기 함대가 제4차 출전 때에는 20여일 전에 미리 합류하여 진형 연습 등 훈련을 함께 했던 것이다.

부산포 해전은 며칠 동안 일본 함대를 수색하던 연합함대가 9월 1일 저녁 무렵 일본 수군의 근거지였던 釜山浦를 직접 공격한 전투였다. 일본 수군이 해전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8월 24일 출항 이후 별다른 전투가 없었는데, 이날은 아침부터 서평포와 다대포 등지에서 몇 척씩을 격파한 뒤에 부

49) 鄭鎭述, 「한산도해전 연구」, 『임란수군활동연구논총』, 해군군사연구소, 1993, pp. 159~194.

50) 李舜臣, 『壬辰狀草』, 1592년 7월 15일자 啓本. 鶴翼陣은 『兵學指南』, 『兵學通』 등 후대의 기록에도 단편적인 내용이 전해지지만, 임란 당시의 학익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陣形은 橫列陣의 한 형태로서 학의 날개 모양으로 상대방을 포위 공격하는 대형이던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이 진형은 우수한 기동력과 일사불란한 기동체계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51) 李舜臣, 『壬辰狀草』, 1592년 9월 17일자 啓本.

산포의 일본 수군 본대 470여 척을 발견했던 것이다.⁵²⁾ 부산포 해전은 일본 수군이 해전을 포기하고 육상에서 조총으로 응사만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해전은 펼쳐지지 않았고, 연합함대가 일본군의 조총 공격을 무릅쓰고 돌격하여 100여 척을 분멸하는 전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비록 전멸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때까지 치른 해전 중 최대의 전과를 올린 의미가 있는 전투였다. 이후 겨울철이 되면서 해상 상태가 나빠져서 해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양국 수군은 越冬에 접어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임란 첫 해의 해전전술을 요약하면 각개격파전술, 화기와 궁시를 함께 사용한 火攻 전술, 정박해 있던 적에 대한 유인전술 그리고 거북선을 앞세워 일본 함대의 대장선을 먼저 제압하는 돌격전술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해 조선 수군이 10전 10승의 연승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을 세 시기로 구분하면 初期 戰爭期, 講和交涉期, 丁酉再亂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 수군은 강화교섭기에도 대규모 해전은 아니었지만, 조정의 명령에 따라 해상작전을 계속하였다.⁵³⁾ 이 기간의 주요 전투로는 1593년 봄의 熊川 공략작전과 1594년 3월의 제2차 唐項浦海戰을 들 수 있다. 먼저 1개월 동안 계속된 웅천 공략작전은 전투를 회피하는 일본군의 해안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유인작전과 상륙작전까지 구사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전투였다.⁵⁴⁾ 후자의 제2차 당항포 해전은 李舜臣이 광양현감 魚泳潭으로 하여금 30여 척의 戰船을 지휘토록 하여 일본 군선 17척을 焚滅하였는데, 이 때도 일본 수군은 해전을 회피하고 도주한 뒤였다.⁵⁵⁾

이 시기에는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과의 접전 자체를 피했기 때문에 해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기간의 전염병

52) 安邦俊, 『隱峰全書』 卷七, 「釜山記事」.

53) 『宣祖實錄』 권34, 선조 26년 1월 甲申.

54) 李舜臣, 『壬辰狀草』, 1593년 4월 6일 啓本.

55) 李舜臣, 『亂中日記』, 1593년 3월 초5일.

피해 등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李舜臣은 현존함대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見乃梁을 지키는 소극적인 전술을 택함과 동시에 수륙합공 전술을 견지했던 것이다.⁵⁶⁾

丁酉再亂 시기의 사실상 첫 전투라고 볼 수 있는 칠천량 해전에 임하는 朝鮮 측의 전술은 왕과 도원수 등의 海路遮斷 전술과 元均이 채택하고 주장한 水陸合攻 전술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왕이 도원수 등의 決戰전략에 따른 전술이 채택됨으로써 일본의 침입로를 막겠다는, 다시 말해 적극적인 해양통제를 위한 海路遮斷 전술의 원칙이 선택되었다.⁵⁷⁾ 이순신과 마찬가지로 원균은 수륙합공전술을 주장하였지만 목살되었고, 상부의 지시에 의거 패착의 근본원인이 되는 부산 원정을 단행하게 되었다.⁵⁸⁾

칠천량 해전 패전으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받은 조선 수군은 전략과 전술 모두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통제사로 재임명된 李舜臣은 해상작전을 포기하지 않고 수군력 재건을 위한 세력결집에 우선 노력하였다.⁵⁹⁾ 칠천량 해전 패전 이후 불과 2개월만에 펼쳐진 鳴梁海戰은 전략적 의미 뿐 아니라 전술적인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해전이다.

먼저 戰船 십여 척뿐인 위약한 전력 때문에 大洋에서의 정상적인 해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순신이 택한 전장은 좁고 물살 빠르기로 유명한 명량 해협이었다.⁶⁰⁾ 결국 이순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은 해로상의 중요한 길목인 명량을 지키겠다는 전술과 함께 작지만 강력한 함대전력을 만들어 화공전술과 당파전술 등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펼침으로써, 세력면에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던 일본 수군을 막아내고 30 여 척을 격파하는 승리를 거두었다.⁶¹⁾

56) 李舜臣, 『壬辰狀草』, 1593년 8월 10일 啓本.

57) 『宣祖實錄』 권89, 선조 30년 6월 庚午·己巳.

58) 위의 책, 권90, 선조 30년 7월 癸卯; 趙慶男, 『亂中雜錄』卷三, 1597년 7월 7일.

59) 앞의 주)20과 같음(『軍史』4, 47집, 1982·2002, 명량해전 관련 논문).

60) 李舜臣, 『亂中日記』, 1597년 9월 15일(又曰, 一夫當選 足擢千夫 今我之謂矣).

61) 筆者는 앞 주의 拙稿를 통해 鳴梁海戰의 승인을 작지만 강한 전력의 함대 준비, 주변 백성들의 지원, 이순신의 리더십과 뛰어난 전술능력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

임진왜란 해전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명량해전은 西海의 제해권을 지켜냈다는 전략적 의미와 함께 潮流와 地形 등 전장환경의 적절한 이용, 전투력의 집중과 길목을 차단한 뛰어난 전술능력을 보여준 역사적 의의가 큰 전투였다.

명량해전 승리 이후 조선 수군은 高下島에서의 월동과 古今島 移陣 과정에서 수군력을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고금도 이전 이후에는 단기간에 놀라운 정도의 전투력 재건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은 李舜臣의 개인적 전략·전술능력과 지도력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주변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⁶²⁾ 고금도에 주둔하던 시기 조선 수군의 전술은 뚜렷하게 살펴볼 만한 기록이 없다. 단, 노량해전 이전에 있었던 소규모 해전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 및 추격전술을 펼친 단편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이자 유일하게 명나라 수군과 조선 수군이 연합함대를 구성했던 전투였다. 이 해전은 明의 經理 楊鎬가 기획한 四路竝進 작전의 한 축인 劉綎의 西路軍과 일본의 小西行長 부대가 맞섰던 順天 曳橋城 전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1598년 11월 중순까지 소서행장 부대의 퇴로를 차단했던 朝·明 聯合艦隊는 자칫 구원하기 위해 접근한 일본의 연합수군에 의해 협격을 받을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이순신은 휘하 장수 송희립의 의견을 좇아 오히려 소서행장 부대를 구원하기 위해 접근한 일본 연합수군을 노량해협에서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⁶³⁾ 이 사실은 곧 陳璘에게 통보되었고, 연합함대는 11월 18일 새벽 일찍부터 노량해협으로 신속하게 기동하여 일본군의 협격을 받을 우려를 불식하고, 오히려 계획한대로 일본 연합수군의 길목을 차

62) 趙潑來, 「임란 해전의 승인과 전라연해민의 항전」, 『명량대첩의 재조명』 해남문화원·해남군, 1987.

63) 安邦俊, 『隱峰全書』 권7, 「露梁記事」, 公始知之大驚 則與將佐議之 宋希立曰 事已至此 無可奈何 彼之送人者 無他請救於諸賊 若其戰日 諸賊不久當至 若在此應變 腹背受敵 我師必敗 不如移陣大洋 決一死戰.

단하는 전술을 펼칠 수 있었다.

노량해전은 19일 새벽녘에 양측 함대가 해협에서 마주치면서 시작되었는데, 해전 초기 風上에 위치한 연합함대는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을 이용한 火攻戰術을 펼쳐 일본 연합수군을 궁지로 몰았다.⁶⁴⁾ 朝·明 연합함대의 화공에 큰 타격을 입은 일본 수군은 전투를 계속하면서 퇴로를 찾아 南海島 연안을 따라 觀音浦 쪽으로 함대를 이동하였다.⁶⁵⁾ 그러나 이날 아침 일본 연합수군이 관음포 포구 안에 갇혀버린 상황이 되자, 朝·明 연합함대는 퇴로를 차단하면서 격렬한 해전을 벌였고 결국 火器 사용과 사살 위주의 돌격전술을 편 연합함대의 대승으로 끝났다.⁶⁶⁾

(2) 임란 시기 日本 水軍의 海戰 전술

임진왜란 이전 시기 왜구 전술은 일본 고유의 登船肉薄戰術(boarding tactics)이라 할 수 있다. 이 전술은 알려진 바와 같이 선박 위에서 칼을 사용해 인명을 殺傷하는 短兵戰術이었는데, 주로 약탈 선박의 선원을 살해하고 물품을 빼앗기 위한 倭寇戰法이었다고 볼 수 있다.⁶⁷⁾ 이후 16세기 중반 鳥銃이 전래되면서 기존의 단병전술 외에 조총을 활용한 사격전법이 추가된 것이 임란 이전 시기에 발생한 가장 큰 전술적 변화요소였다. 임란 전 기간에 걸쳐 일본 수군이 중요한 陸戰에 자주 참전했던 것으로 볼 때

64) 趙慶男, 『亂中雜錄』 卷三, 戊戌年(1598) 11월 19일 ; 金州植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I, 책세상, 1999, pp. 41~42(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Little Brown and Company, 1932).

65) 『李忠武公全書』 권13, 附錄5, 「紀實」 上.

66) 拙稿, 「朝·明 연합함대의 형성과 露梁海戰 經果」, 『歷史學報』178, 역사학회, 2003.

67) 宇田川武久, 『日本の海賊』, 誠文堂新光社, 1983, pp. 82~125. 이 책에 의하면 1576년 7월의 제1차 石山 전투시에 火攻戰術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왜구적 전투경험(朝鮮이나 明 과의 전투)에 의해 국제적으로도 한 단계 높아진 전투방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육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조총을 보유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의 조총 성능이 조악했기 때문에 海戰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시기 일본은 海洋戰略이 미비했기 때문에 해전전술 또한 발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임란 초기 해전에서 연패를 거듭한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수군이 중앙정부에 의해 체계화되거나 통일된 조직 없이 소규모 함대별로 활동했던 것이 기본적인 패인이었다. 즉, 이중적인 수군조직 체계로 인해 대규모 함대전술이 계획되지 않았고 海戰에 대한 관념도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⁸⁾

이와 같이 임란 초기 일본 수군은 각개 소규모 함대의 해안지역 약탈 등 자체 운용과 조총사격 위주의 단순한 戰術뿐이었다. 그리고 조선 수군과의 해전 때에는 軍船의 크기 및 구조 차이와 화기사용 등 전술상의 차이로 인해 특기인 등선육박전술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전술의 부재는 첫 해 일본 수군의 全敗로 연결되었다.

초기 해전의 실패는 강화교섭기 동안 일본 수군의 전술 변화에 영향을 끼쳐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丁酉再亂 이전 시기 일본 수군은 재침을 준비하면서 전략전술의 개발에 앞서 거국적인 차원의 대형 軍船 건조와 선원의 징발을 통해 수군력을 크게 증강한 바 있다.⁶⁹⁾

이 시기 일본 수군은 전술적인 면에서도 조선 수군을 격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 이 사실은 정유재란 직전 일본에 다녀온 黃愼이 올린 비밀 書啓에 포함되어 있다.⁷⁰⁾ 그 내용을 보면, “조선 수군이 海戰을 잘 하고 선박도 견고하니 피차 맞서 싸운다면 (일본이) 반드시 이기기 어렵다.

68)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pp. 17~18.

69) 渡辺世祐, 『朝鮮役と我が造船の發達』, 『史學雜誌』46編 5号, 1935; 三鬼清一郎, 앞의 논문, 1968, pp. 280~284.

70) 『宣祖實錄』 권83, 선조 29년 12월 癸未.

만약 어두운 밤에 몰래 나가서 습격하되 조선의 큰 배 한 척에 일본은 작은 배 5~6척 내지 7~8척으로 대적하고 矢石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일시에 싸운다면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⁷¹⁾ 다시 말해, 夜間奇襲 전술과 包圍挾擊 전술로 공격하면서 고래의 登船肉薄戰術을 펼친다는 개념이었다.

이 세 가지 전술 외에 漆川梁海戰에서 일본 수군은 수륙병진전략을 전술적으로 활용한 수륙합동작전을 구사하였다. 즉 일본 수군은 바다에서 앞서 언급한 전술로 조선 수군을 공격하고, 상륙하여 도주하는 조선군은 일본 육군이 해안에서 섬멸한다는 계획이었다. 칠천량 해전은 이와 같이 일본군이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 임란 해전사상 유일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수군은 칠천량 해전 이후 약 한달 동안 해상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즉 조선 수군에 대한 추가적인 추격이나 섬멸작전을 펼치지 않았다. 단지 이 기간 동안 주변해역을 소탕하거나 약탈한 것이 전부였던 것이다.⁷²⁾ 바로 이 기간에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었고, 호남의 서남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조선 수군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 수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1597년 8월 중순의 南原城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수군의 해양전략이나 전술이 미숙했던 점을 보여준 예라 하겠다.⁷³⁾ 뒤늦게 일본 수군은 다시 수륙병진전략을 채택하여 조선 수군의 잔여 함대를 수색하며 西海 진출을 노려보았지만,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의 작지만 강한 함대에게 패배함으로써 丁酉年(1597)의 해상작전을 마무리짓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인 1598년에도 일본 수군은 적극적인 해상활동을 펴지 못했다. 이 시기의 일본군은 각기 주둔지역을 지키면서 지구전을 벌일 계획이었고, 따라서 일본 수군의 역할 역시 각 지역간의 연락이나 군수

71) 黃愼, 『秋浦集』卷2, 「啓」, ‘通信回還後書啓’.

72) 金浣, 『海蘇實記』, 「本道巡察使李用淳狀啓」(영천 전통문화연구소, 『海蘇實記 국역본』, 1987)

73) (日本)參謀本部, 『日本戰史 朝鮮役』本編, 1924, pp. 356~362.

품 수송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 해전인 露梁海戰은 후퇴하려는 일본 침략군의 선봉, 小西行長 부대의 퇴로를 朝·明 연합함대가 막았기 때문에 벌어진 해전으로 일본 수군이 적극적으로 공격해 온 것은 아니었다. 전술적으로도 단지 노량해협으로 소서행장 부대를 구원하기 위해 연합수군을 형성하여 접근했을 뿐 별다른 특이한 작전을 구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 연합수군은 朝·明 연합함대의 火攻에 걸려들어 해전 초기부터 큰 피해를 입었고, 觀音浦 포구를 退路로 잘못알고 진입했다가 최대의 격전을 벌인 결과 단일 해전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패전을 기록하면서 임진왜란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⁷⁴⁾

4. 맺음 말

임진왜란 전체를 놓고 볼 때 海戰이 이전 시기의 다른 전쟁들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쟁 초기 위기상황에 몰렸던 조선이 전세의 역전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義兵과 李舜臣의 활약을 토대로 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전쟁 첫째 해에 10전 10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이래 전쟁이 끝나는 시기까지 몇 차례의 결정적인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전 승리가 가능했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 답으로는 무기체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앞에서 살펴본 전략과 전술의 차이도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하다.

74) 『宣祖實錄』 권106, 선조 31년 11월 乙巳條의 명나라 軍門이 조선 조정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軍船 100척 포획, 200여 척 焚滅, 500여급 斬首, 그리고 사상자는 不知其數라는 것이었다.

우선 조선은 건국 이래 왜구 방어책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수군 체계와 바다로 침입한 적은 바다에서 막는다는 해상거부전략의 명맥이 임진왜란 시기까지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 때문에 임진왜란 발생 1년여를 앞두고 李舜臣 등을 각도 수군절도사로 임명하여 전란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초기의 해상거부전략은 첫 해 10전 10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조선 朝廷에 의해 적극적인 決戰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선조와 조정은 1593년 이후 당시 수군이 처했던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순신에게 해상 출동과 일본 수군 소탕을 지속적으로 명령했던 사실은 이러한 해양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결국 元均이 지휘한 연합함대의 칠천량 해전 패전으로 이어졌다. 패전 이후 조선 조정은 해양방위 포기를 언급하기까지 했으나 이순신은 수군의 재건과 西海의 제해권 방어를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명량해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본군의 수륙병진전략을 좌절시켰다.

반면에 일본 수군은 전쟁 초기부터 제해권 확보를 위한 해양전략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단지 병력과 군수품의 수송목적에만 수군을 사용했을 뿐, 전략적인 목적에서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계획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수군의 주력 장수들이 경기도 지방까지 진출하여 육전에 임했던 것만 보아도 뚜렷한 해양전략이 미비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쟁 첫 해에 海戰의 연패 보고를 접한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력 수군을 출전시켰지만 한산도 해전에서 결정적 패배를 당하였다. 이후 일본 수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해안가에 築城하고 지킬 뿐 해전을 기피하는 요새함대전략으로 일관하였다.

일본은 이후 초기 해전의 패배를 반성하면서 제해권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순신과 조선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군선건조, 수군징발 등의 준비

와 함께 구체적인 전술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칠천량 해전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듯 하였지만, 또 다시 해상작전을 중단하고 남원성 전투에 참전하는 등 해양전략의 미숙성을 드러내면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전투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했던 것이다.

같은 시기 명나라의 해양전략은 뚜렷하게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 시기의 경험에 따라 명나라도 해양방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유재란 직전 시기에는 이미 수군의 파병을 결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명나라는 육군의 파병과 마찬가지로 자국 영토 밖에서의 침략군 저지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투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8년 11월 19일에 펼쳐진 노량해전에서는 이순신의 전략과 설득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朝·明 연합함대가 합동작전을 펼쳐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또한, 朝·日 양국 수군은 戰術 면에서도 해양전략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점이 있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조선 수군이 火器와 弓矢를 주로 사용하여 일정 거리를 둔 상태에서 접전하는 전술이라면, 일본 수군은 비록 鳥銃을 보유했지만 단순히 短兵의 전술을 보완했을 뿐 기존의 登船肉薄戰術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요컨대 조선은 해양 거부와 통제를 오가는 전략적 변화가 있었지만, 수군전력을 건설하여 제해권을 확보한다는 기본적인 해양전략이 존재하였다. 반면, 임란 시기의 일본은 뚜렷한 해양전략 없이 단지 병력과 군수품의 수송에만 치중함으로써 수군력을 활용한 제해권 장악에 실패하였고, 이는 결국 전쟁실패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겠다.

(원고투고일: 2004. 3. 8, 심사완료일: 2004. 4. 1)

주제어: 해양전략, 해상거부·해양통제, 제해권, 등선육박전술, 유인 및 화공 전술

<ABSTRACT>

A Comparison among CHOSUN · MING · JAPAN's Strategy Tactics in Imjinwaeran's Sea-Engagement

Lee, Min-Woong

What are the factors that made Chosun naval forces achieve triumph over major naval battles during Im Jin Wae Ran(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re could be many requisites including possession of different weapon systems. However, maritime strategy and tactics are also one of the important requisites.

Chosun had developed naval forces since the founding of the nation and inherited the sea denial strategy, 'Attack of enemy naval forces need to be defended in the sea', till Im Jin Wae Ra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ased on defeating enemy naval forces 10 times out of 10 since the beginning of Im Jin Wae Ran's sea denial strategy, it has changed into the sea control strategy by Chosun dynasty.

However, this kind of strategic change had led Won Gyun's combined fleet to reverse at Chil Chun Ryang sea battle. After losing the sea battle, the court of Chosun had even considered renunciation of naval defense, but Admiral Yi put lots of effort on recruiting naval forces and naval supremacy in the South Sea. Chosun naval forces dramatically defeated Japanese forces for the first time in 2 months at Myung Rang sea battle which collapsed Japanese Military-Navy joint attack strategy.

On the other hand, Japanese naval forces were very short of securing maritime strategy such as naval supremacy since the beginning of the

battle. They only applied naval forces in transporting military supplies. They were not prepared for any battles against Chosun. This verified a lack of their maritime strategy.

Introspecting their consecutive defeats, Japanese arranged detailed tactics such as nighttime guerilla warfare and besieging enemy forces. They felt a necessity for naval supremacy and built battle ships and commanded naval forces. As a result, Japanese forces accomplished their aim by gaining a victory at Chil Chun Ryang sea battle. But they stopped concentrating on maritime operations because of their participation in NamWon Castle attack. This caused a poor ability in maritime strategy and also provided time for Chosun to prepare its naval forces.

Also, there was a difference in tactic of naval forces between Chosun and Japan. Suppose Chosun naval forces have used a tactic of using firearms and bow and arrows at certain interval, but Japanese naval forces have concentrated on keeping volleys to supply tactical combats which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existing boarding tactics.

Although Chosun had lots of tactical changes in maritime denial and control, there existed a fundamental maritime strategy which was to build a stronger naval force in order to assure command of the sea. However, Japanese only depended on military forces (naval forces in this sense) and military supply without any maritime strategies which caused them to fail to seize command of the sea and became one of the main factors of completely losing in battles.

Key Words : maritime strategy, sea denial, sea control, command of sea, boarding tactics, temptation & using firearms tactics